

“ SK, 투기자본에 도둑처럼 노동자 팔아먹어”

18일, SK엔카지회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전 조합원 상경, “고용안정 위해 끝까지 투쟁”

금속노조 서울지부 SK엔카지회 조합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나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죽도록 일해 국내 최고의 중고차 업체로 만들었더니 SK가 투기자본에 노동자를 팔아넘겼다”라고 규탄했다.

1월 18일 노조 SK엔카지회 조합원들은 총파업 나흘째를 맞아 서울 을지로 한앤컴퍼니와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밀실 매각을 규탄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구자균 SK엔카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SK는 5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단체협약을 보면 회사가 매각될 때마다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노조가 많은 양보를 했지만, 회사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구자균 지회장은 “고용안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끌어내야 한다.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격려했다.

SK(주)엔카는 지난해 11월 17일 투기자본인 한앤컴퍼니에 매각됐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매각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 SK는 매각 조건에 5년간 고용보장이 있다고 말한다. 지회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기업을 사들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리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는 “한앤컴퍼니는 기업을 매입하면 서도 기업 발전방향은 물론 노조와의 대화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앤컴퍼니가 있는 페럼타워 앞에서 1부 결의대회를 마친 지회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시청을 거쳐 SK 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에서 지회는 “SK엔카는 강제로 조기출근과 잔업, 휴일근무 등을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물론 연차수당마저 떼어먹었다”라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인 최태원 회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 9일 SK엔카를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

독을 요구했다.

SK본사 앞에서 이어간 결의대회에서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노동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서야 진짜 사장이 SK 최태원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교섭에 나온 회사 대표들은 모든 사항을 최태원 회장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밀실 매각과 고용보장, 체불임금 등 모든 문제에 관해 진짜 사장 SK 최태원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부가 책임 있게 길을 열고 단체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SK는 중고차 시장 전망이 밝지 못해 SK엔카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SK엔카는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중고차업계 1위 기업이다. 지회는 “시장 전망이 어두워서 매각한다고 하면서 수원에 SK V1모터라는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를 짓고 있다. 이번 매각을 통해 SK 최태원 회장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반발한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분당용인지점 김태우 조합원은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매장 앞 눈을 치우고 컵라면 하나에 몸과 마음을 녹이던 회사였다”라고 회고했다. “SK 최태원 회장은 회사를 키운 노동자를 투기자본에 팔아넘겼다. 이제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KEC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현장 성희롱 방치 사업주에 경종 울려야”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C의 성희롱 재발방지와 올바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KEC는 지난 12월 1일 구미공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벌였다. 강사가 교육 중 강사가 여성을 성적 대상

화 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교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에 강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KEC는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소수라며 문제의 교육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종희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강사가 여성을 연령대 별로 성적 대상으로 구분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했다”라며 “사측은 지회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괜한 꼬투리를 잡지 말라며 무시하고, 현장에서 강사의 발언을 이용한 추가 성희롱이 발생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종희 지회장은 “성희롱 예방 강사가 성희롱을 일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 강사를 초빙한 회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와 강사가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한다. 강사 자격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KEC지회는 사측이 문제 제기를 받고도 같은 강사의 교육을 네 차례나 반복 행위는 성희롱을 조장한 가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노조 구미지부장은 “KEC가 강의 스타일 문제라고 강사를 두둔하고, 문제 제기를 무시해 문제다. KEC는 남녀 간의 승진 차별과 임금격차가 큰 사업장이기도 하다”라며 “노동현장의 성차별이 있는 한 성폭

력도 그치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이 노동현장의 성차별, 성폭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노조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해 조합원들이 올바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보건의료노조에 사업주

의 성폭력 예방 책임을 명시하는 단협이 있다. 이런 단협을 민주노총 가맹 조직에서 쟁취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불과 1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이 주어지는 등 정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 가해강사는 구미 상공회의소 추천으로 KEC가 초청했다.

노조 KEC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KEC에 재발 방지와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광기연 해고자 43명, 공장으로 돌아간다

고용-노동조합 승계, 기존 노사합의서 이행 협약 등 잠정합의...21일 총회, 24일 투쟁 승리문화제

1년 가까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투쟁 벌여온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해고자 43명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다.

노조 동광기연지회(아래 지회)와 회사 측은 1월 18일 해고자 고용승계와 노사합의서-노동조합 승계, 해고기간 임금지급, 고용보장, 고소고발 취하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해고 조합원 43명을 동광그룹 SHOP 2공장으로 고용승계하고, 입사 후 해고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지회와 과거 동광기연(주), 관계사 간에 체결한 모든 노사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조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회는 1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

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24일 오전 조인식을 열고 오후에 인천 계양구 동광기연 본사 농성장 앞에서 ‘투쟁승리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회는 유내형 동광그룹 회장 측이 최종 교섭 전 “합의를 잘해서 금속노조 롤모델 만들겠다. 그동안 빨리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